

편집 후기



상대방의 표정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떤 상대자에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김빠지게 하면서도 무척 긴장시키는 일이다.

도대체 편집의도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건지, 또 이 내용이 독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짜임새있게 되고 있는건지 등에 대한 의심속에서 매번의 작업들이 진행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간의 준비가 한편의 책으로 묶여져 나올 때마다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다는 기분이 드는 것인지 모르겠다.

여김없는 걱정속에 이번호에서는 '88서울 올림픽에 대비한 방화대책을 특집으로 해봤다. 새삼 알차게 치뤄지는 올림픽이 될 것임을 확인한다.

방재와 보험지 발간작업에 처음 끼게되어 그 낯섬과 한 미숙함에 일이 없어 주위분들께 죄송스럽다. 다음호에는 더 나은 모습을 약속하며 아울러 독자여러분께 봄인사를린다. <卿>

무심히 밟고 지나치던 돌틈새를 비집고 나와 벌써 푸른색을 띤 새싹을 보며 회색빛 도시에도 여김없이 봄이 왔음을 느낀다. 이제 봄은 왔고, 잠시후 여름이 지나면 '88 서울 올림픽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번 호에는 앞으로 1백여일 남은 '88서울 올림픽에 대비한 방화대책을 특집 주제로 선정했다. 우리의 노력이 대회의 방화안전 대책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고 방화의식의 저변확대로 화재를 포함한 사고없는 서울올림픽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동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치우쳤던 업계 탐방 및 취재처를 지방으로까지 확대

하는 한편 생활기상을 게재하는 등 약간의 변화를 시도해 보기도 했다.

원고를 주신 집필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재와 보험에 관심을 주신 애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建>

투고를 환영합니다

계간 「방재와 보험」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방재와 보험」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내용

- 화재보험의 손해보상으로 성공한 사례
- 소방관의 체험담 또는 소방수기
- 화재현장 목격담
- 시, 수필, 수기, 풍토 등 문예작품

□ 보낼 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우편번호 150-010) 본협회 홍보부「방재와 보험」담당자 앞
문의전화: 782-8156

□ 게재된 원고에는 소정의 고료가 지급됩니다.

防災와保險

1988/ 봄호
계간 / 비매품

<통권 제37호>

등록/마- 827호(1973년 10월 11일)

발행/1988년 4월 1일

인쇄/1988년 3월 25일

발행겸 편집인/이상규

인쇄인/성전문화인쇄/강재수

사진식자/창기문화사

발행처/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편집실/직통 782-815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장령을 준수한다.